

만주어 문법서에서 기술한 -ra와 -ha의 의미

— 시제(時制)인가 양상(樣相)인가

박 상 철*

[초 록]

본고는 만주어의 시상 어미 가운데 특히 비종결형에서 정연한 대립 관계를 보이는 -ha와 -ra가 Comrie (1976, 1985) 등의 일반언어학 이론에서 정립된 시상 범주 가운데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만주어 문법서에서 만주어의 시상(時相) 어미들은 전통적인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는데, Avrorin (1949) 이후 이들을 양상(樣相)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Avrorin (1949) 이후의 소위 ‘완결된’ 상황을 가리키는 -ha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 -ra의 양상 대립은 Comrie (1976)에서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대 시제적인 관점에서 과거와 비과거의 시제 대립으로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만문노당(滿文老檔), 시제, 상대 시제, 양상, 완망상, 비완망상
Manchu Language, Tense, Relative Tense, Aspect, Perfective Aspect,
Imperfective Aspect

1. 머리말

만주어는 알타이언어 가운데 만주통구스어파에 속하는데, 현재 보고된 구어 사용자가 10여 명에 불과한 ‘절멸 임박 언어(nearly extinct languages)’이다.¹⁾ 그러나 만주족이 건립한 청나라 시기에는 만주어가 지배 민족의 언어로서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중국 고전이 만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접근하기 위한 외국인의 학문적인 수요가 계속 존재하여 왔으며,²⁾ 청나라가 멸망한 현재까지도 만주어 문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만주어 문법서는 17세기 말에 쓰인 Verbiest (1696)으로 보인다. 라틴어로 쓰인 이 책은 당시 라틴어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만주어를 전통적인 ‘과거/현재/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가지는 언어로 기술한 것도 그러한 영향으로 보인다.

- (1) Verbiest (1696)에 제시된 만주어의 시상 형태(일부만 제시)
- a. 직설법 완료 과거(indicativum praeteritum perfectum): -ha
예) hūla-ha ‘vocavi (불렀다)’
 - b. 직설법 미완료 과거(indicativum praeteritum imperfectum): -mbihe
예) ji-mbihe ‘veniebam’ (부르고 있었다/불렀다(습관적))
 - c. 직설법 현재(indicativum praesens): -mi (또는 -mbi)
예) hūla-mi ‘vocado (부른다)’
 - d. 직설법 미래(indicativum futurum): -ra
예) hūla-ra ‘vocabo (부를 것이다)’

1) 김주원 외(2008), 『사라져 가는 알타이언어를 찾아서』, 파주: 태학사, p. 57.

2) Möllendorff (1892)의 서론에서 ‘만주어가 중국어에 비해서 대단히(infinitely) 배우기 쉽기 때문에’ 중국 고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Möllendorff, P. G. von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Printed at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에서 만주어 -ha를 ‘완료 과거’로, -mbihe를 ‘미완료 과거’로 분류한 것은 Comrie (1976)의 용어로는 완망상 과거(past perfective)와 비완망상 과거(past imperfective)의 양상(樣相) 대립으로 볼 수 있지만,³⁾ 이는 과거 시제에 한정된 대립으로 역시 주된 대립은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대립으로 기술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시제 대립 중심의 기술은 20세기 초의 문법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한편 만주어 시상 어미의 대립을 시제 대립이 아닌 양상 대립으로 본 최초의 연구는 Avrorin (1949)로 보인다.

(2) Avrorin (1949)에 요약된 만주어 시상체계(번역은 필자)

- 1) 분사형(имена дей ствия ‘[직역]동명사’) 범주는 시제를 가지지 않고 두 개의 주요 양상(основных вид)을 가진다: -ha (окончательный ‘완결된’) / -ra (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완결되지 않은’)
- 2) (이들이)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 각각 ‘과거’와 ‘현재-미래’ 시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 3) 직설법의 경우 시제 범주를 가진다: 과거 (-habi와 -mbihe), 현재-미래 (-mbi). 그런데 이들도 두 개의 주요 양상에서 발견한 것이다.
(중략)

이에 따르면 만주어의 분사(participle) 어미 -ha와 -ra는 기본적으로

3) Comrie (1976)의 ‘perfective aspect/imperfective aspect’에 대한 ‘완망상(完望相)/비완망상(非完望相)’ 번역은 박진호(2011: 304)의 각주 12를 따른 것이다. “완망상을 특징지을 때 사용되는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을 ‘완결된(completed)’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Comrie 1976: 18). 완망상의 본질은 “종결, 완결, 끝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결, 완결, 끝남”과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으나) 사태를 온전하게 시야에 넣고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perfective aspect를 ‘완료상, 완결상’, imperfective aspect를 ‘불완료상, 미완료상, 비완결상’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완결된’/‘완결되지 않은’ 양상 대립을 가지는데,⁴⁾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ha의 경우 과거 시제로, -ra의 경우 현재-미래 시제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직설법 종결어미(=정동사 어미(finite verb))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양상적 의미를 가지던 것이 시제적 의미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 Avrorin (194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만주어 연구에서 -ha와 -ra를 포함한 만주어의 시상 어미를 시제 범주가 아닌 양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ha와 -ra를 양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가 이들이 시제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관형형과 명사형에서 보이는 정연한 대립이 Comrie (1976) 이후에 잘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2. 만주어 시상 어미의 분포와 의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만주어 시상 어미의 분포와 의미를 간략히 기술한다. 만주어 시상 어미는 -ra, -ha, -mbi, -mbihe, -habi, -ha bihe의 여섯 종이 있는데,⁵⁾ 이들은 동시에 만주어 평서문의 모든 종결어미를 이룬다.

4) 본고에서는 유형론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양상 범주인 perfective, imperfective, completive, resultative 등의 용어와 Avrorin (1949) 등 만주어 문법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 ‘완결된’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이들 시상 어미는 모음 조화 등에 따른 이형태를 가지는데, -ra는 -ra/re/ro, -ha는 -ha/he/ho/ka/ke/ko, -habi는 -habi/hebi/hobi/kabi/kebi/kobi 등으로 나타난다. 일부 문법서에서 시버어에 나타나는 -mahabi 등의 형태도 다루고 있으나 이렇게 일반적인 만주어 문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 만주어 동사 ara- ‘쓰다’의 활용형과 그 영어 및 한국어 번역⁶⁾

a. 분사(participle)

ara-ra	종결형	I shall write. (future)	(내가) 쓰겠다.
	관형형	writing, going to write (participle)	쓰는 / 쓸
	명사형		쓰는 것 / 쓸 것
ara-ha	종결형	I wrote. (preterite)	썼다.
	관형형	written, having written (past participle)	쓴
	명사형		쓴 것

b. 정동사(finite verb)

ara-mbi	I write. (present tense)	쓰고 있다. 쓴다. 쓸 것이다.
ara-mbihe	I was writing. (imperfect tense)	쓰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썼다. 쓸 것이었다.
ara-habi	I have written. (indefinite past)	썼다. (현재 관련성)
ara-ha bihe	I had written. (pluperfect)	썼었다. (과거의 과거)

만주어 동사의 활용형은 분사 형태와 정동사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⁷⁾

6) 영어 번역과 괄호 안의 문법 용어는 Möllendorff (1892: 9)에서 인용하였으며,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Möllendorff (1892)가 가장 충실하고 훌륭한 만주어 문법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고의 대상이 되는 시상 형태에 대한 기술은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크게 어긋나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 번역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주어의 해당 형태가 가리키는 시간 영역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만주어의 해당 형태가 대응하는 영어나 한국어의 문법 형태와 같은 의미이거나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주어와 양 언어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만주어에서 하나의 형태가 다른 언어에서 여러 형태에 대응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만주어 -ra는 관형형에서 한국어의 ‘-는’과 ‘-을’에 모두 대응한다.

분사는 종결형뿐 아니라 관형형과 명사형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동사는 종결형으로만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Verbiest (1696)를 비롯한 문법서에서 -ra, -ha, -mbi를 각각 ‘미래’, ‘과거’, ‘현재’ 시제로 명명한 것은 이들이 종결형 어미(즉 직설법 형태)로 사용된 경우이며, -ra와 -ha가 결합한 형태가 비종결형(즉 관형형 및 명사형)으로 사용된 경우 각각 ‘분사’(participle), ‘과거 분사’(past participle)로 다르게 명명하였음을 볼 수 있다.⁸⁾ 아래 3절에서 다루겠지만 Avrorin (1949)에서 비종결형에 나타나는 -ra와 -ha의 시간적 의미를 검토한 결과 만주어가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임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 두 형태의 용례를 더 살피기로 한다.

(4) 분사 어미 -ra의 용례⁹⁾

- a. cimari bi geren cooha be gaifi dahara (8:50:1)
내일 내가 여러 병사를 인솔하고 향복하겠다.’
- b. morin šusilhalame jidere coohai ishun dosika, (8:26:3)
말을 채찍질하며 오는 병사를 향하여 나아갔다.
- c. dain de bahafi wara beyebe ujifi, ula gurun de unggifi ejen obuha. (1:4:4)
전쟁에서 잡아서 죽일 목숨을 살려주고, Ula국에 보내서 수장이 되게 했다.

7) 동사 어간에 -me와 -fi 등이 결합한 부동사(converb)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8) 이는 이들 문법서를 편찬한 저자들의 모어인 라틴어 및 로망스언어에서 동사 활용형의 종결형과 비종결형을 엄밀히 구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9) 본고에서 제시하는 용례는 17세기 초의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문노당』(滿文老檔)에서 추출한 것으로, 원문은 다음의 영인본을 이용하였다. 中国第一历史档案馆 整理·编译(2009), 『内阁藏本满文老档』,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괄호 안의 숫자는 영인본의 (권:장:행)을 나타낸다.

d. han, tangse weceme genehe amari, pan tūre be donjiha,
(7:18:5)

Han이 당자(堂子)에 공양하러 간 후에 운판 치는 것을 들었다.

e. dahara daharakū be suwe inu ambula seolehe de sain kai,
(6:32:2)

항복할지 항복하지 않을지를 너희들도 깊이 숙고하는 것이 좋다.

(4a)는 분사 어미 -ra가 평서문 종결형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만주어 문어에서 이러한 문장은 오직 1인칭 주어만을 가지며, 모두 ‘약속’의 의미를 가진다.¹⁰⁾ ‘약속’은 화자의 미래 행위를 청자에게 다짐하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는 미래 상황을 가리키며, 이러한 까닭에 여러 문법서에서 종결형 -ra를 ‘미래’ 시제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4b)와 (4c)는 관형형에 사용된 -ra의 예인데, 각각 상위문 시제 기준 현재와 미래 상황을 가리킨다. 즉 (4b)의 경우 상위문 상황의 시제는 과거(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명사절에 속하는 관형형 *jidere* ‘오는’ 상황은 상위문 상황 대비 상대적인 현재 상황을 가리키며 (4c)의 경우 ‘죽일’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상위문 상황 대비 상대적인 미래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4d)와 (4e)는 명사형에 사용된 -ra의 예인데 마찬가지로 각각 상위문 시제 기준 현재와 미래 상황을 가리킨다.

10) -ra가 비종결형에서와 다르게 종결형에서 이러한 주어 제약과 제한된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설명할 수 없다. 추측컨대 종결형에서 전형적으로 현재 상황을 지시하는 -mbi와의 대립으로 인해 통시적으로 분포와 의미의 축소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사역원에서 편찬한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에서도 이러한 주어 제약과 ‘약속’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ra는 대부분 약속형 어미 ‘-마’에 대응한다. *bi booha udame genere* <02.03b> 내 반찬 사라 가마.

(5) 분사 어미 -ha의 용례

a. sunja biyade, hibsu i aga agaha, (5:7:3)

5월에 꿀비가 내렸다.

b. tere be dahaha cooha, meni ere ing de bi, (8:48:1)

그를 따라온 병사가 우리의 이 영(營)에 있다.

c. ceni joboho be emte bithe arafi han de alibuha, (3:10:1)

자기들이 고통 받은 것 을 하나씩 글로 써서 Han 에게 바쳤다.

(5a)에서 종결형으로 사용된 -ha는 발화시 대비 과거 상황을 가리킨다. (5b)와 (5c)는 각각 관형형과 명사형으로 사용된 -ha의 예인데, 역시 상위문 상황 대비 상대적으로 선행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5b)에서 병사가 그를 따른 상황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선행하는 것이며, (5c)에서 고통 받은 상황은 당연히 그것을 한에게 글로 고발하는 것에 선행하는 것이다. 즉 -ha는 비종결형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 즉 상위문 시점에 비해 선행하는 과거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상위문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나 미래 상황을 가리키는 -ra와 마찬가지로 상대 시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Avrorin (1949) 이후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

2절에서 살폈듯이 만주어의 관형형과 명사형은 -ra와 -ha 두 형태로만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 체계를 보이는데, 상위문 상황에 대하여 동시적이거나(현재) 앞으로 일어날(미래) 상황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ra를, 선행하는(과거) 상황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ha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vrorin (1949)에서는 이렇듯 상위문 상황에 대해 상대적인 시간 관계를 보이는 것을 근거로 기존의 논의에서 시제 요소로 보았던 -ra와 -ha를 양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 (6) Avrorin (1949)에서 제시한 러시아어와 만주어 대조 구문
- a. Когда ты говоришь, я слушаю. / Когда ты говорил, я слушал.
 - a'. When you are talking, I listen. / When you were talking, I listened.
 - b. si(ni) alara de bi donjimbi / si(ni) alara de bi donjihabi
 - b'. 네가 말할 때, 내가 듣는다 / 네가 말할 때, 내가 들었다.

(6a)와 (6b)는 각각 Avrorin (1949)에서 제시한 동일한 의미의 러시아어와 만주어 문장이고 (6a')과 (6b')은 필자가 보충한, 이에 대응하는 영어와 한국어 문장인데, '/' 앞뒤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짝 지어져 있다. 이들 문장은 종속절(시간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복합문인데, 러시아어(및 영어)와 만주어(및 한국어)를 비교하면, 그 시상 형태의 실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의 문장들에서 종속절과 주절의 상황은 동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6a)의 러시아어에서는 두 절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서 동일한 시제 변화를 보인다. 즉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 종속절과 주절이 모두 현재 시제를 취하고,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 두 절이 모두 과거 시제를 취한다. 이에 반해서, 동일한 의미의 만주어 문장 (6b)에서는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 주절이 -mbi 형태로,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 주절이 -habi 형태로 달리 나타나지만, 종속절에서는 두 상황 모두 동일하게 -ra (de) 형태로 나타난다. Avrorin (1949)에 의하면, (6b)와 같은 만주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시점(時點)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1) 발화시, 2) 기준시점이 되는 주절의 상황시, 3) 종속절의 상황시가 그것이다.¹¹⁾ 러시

11) Avrorin (1949: 64) “здесь мы вправе были бы ожидать появления третъего момента, соотносительного с первыми двумя,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выше, т. е. здесь, казалось бы, должны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момент реч и относящиеся к нему момент совершения главного действия и

아어 문장에서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모두 발화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만주어의 종속절 내지 관형절 또는 명사절과 같은 내포절의 경우 발화시가 아닌 주절 상황과의 시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vrorin (1949)는 만주어에서 이러한 종속절 또는 내포절 상황과 주절 상황 사이의 시간 관계를 시제 범주가 아닌 상 범주로 설명하는데, 주절 상황의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종속절이나 내포절 상황이 ‘완결되었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완결된 양상’(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을 나타내는 -ha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완결되지 않은 양상’(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을 나타내는 -ra가 결합하며,¹²⁾ 이들이 주절의 서술어로 사용될 때 각각 ‘과거’ 시제와 ‘현재-미래’ 시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원래 양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 형태가 통사적 위치에 따라 시제 범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제 범주에 속하는 정동사 어미(-mbi, -mbihe, -habi)도 원래 이들 두 개의 주요 양상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예문 (2) 참조).

모두가 Avrorin (1949)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만주어 문법서에서 -ra와 -ha를 시제가 아닌 양상 대립으로 기술하

момент совершения второстепенного действия.”(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시점(時點)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발화시, 기준시가 되는 주동작의 시점, 부동작의 시점.)

- 12) Avrorin (1949)에서 -ha와 -ra의 양상 대립에 사용한 이들 용어는,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러시아어의 전통적인 ‘완료상’(совершенный вид)과 ‘비완료상’(не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대립과 일치하지 않으며, Comrie (1976)의 ‘완망상’(perfective aspect)과 ‘비완망상’(imperfective) 대립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이들과 구별하여 ‘완결된 양상’(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не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ид)이라는 번역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에 대해 Avrorin (1949)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не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ющего действие-состояние, мыслимое как не имеющее конца, и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ющего действие-состояние, мыслимое как имеющее конец.” (완결되지 않은 양상은 행위-상태가 끝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완결된 양상은 행위-상태가 끝점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¹³⁾ Haenisch (1961)에서는 -ra와 -ha 형태를 각각 ‘미완료 분사형’(Participium Imperfecti)과 ‘완료 분사형’(Participium Perfecti)으로 명명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완료되지 않은 행위’와 ‘완료된 행위’라고 기술하였다. 또 직설법 -mbi 형태에 대해서도 ‘아오리스트’(aorist)로 명명하고 ‘인칭과 시제(Tempus)의 구별이 없다’고 기술한 것은, 만주어를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Sinor (1968)에서도 -mbi, -ha, -ra를 각각 ‘중립상’(aspect neutre), ‘완성상’(aspect accompli), ‘미완성상’(aspect inaccompli)으로 명명하고, ‘미완료는 곧 현재와 적어도 일부분 겹쳐지기 때문에, -mbi는 다른 언어에서 현재로 표시될 수 있다’고 기술하여, 현재 시제라는 의미는 완료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이차적인 의미라고 기술하였다. Roth Li (2000)는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의 만주어 시상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확실하지만, 원래의 시제 대립을 양상 대립으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愛新覺羅烏拉熙春(1983)의 ‘과거시’(過去時) 이하의 항목들은 Roth Li (2000)에서 ‘Perfective’ 이하로, ‘현재시’(現在時)와 ‘미래시’(未來時) 이하의 항목들은 ‘Imperfective’ 이하로 통합되었다. Gorelova (2002)는 -ra와 -ha를 ‘imperfect’와 ‘perfect’로 구분하면서, Avrorin (1949)의 ‘이들 두 형태가 고전 만주어에서 고착될 때, 이들의 양상적인 의미가 시제적인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에서는 -mbi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만주어의 동사에는 시제(tense)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으며, 이 접미사는 동작・작용이 『完了가 아니다』라는 aspect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13) 이하 선행 연구의 문법 용어 사용은 각 연구자에 따라 고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어 번역도 필자에 의한 임시적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Roth Li (2000)의 ‘perfective/imperfective’ 대립은 Comrie (1976) 이후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비완망상(imperfective) 대립과 의미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는 역시 저자가 만주어를 시제 대립이 아닌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양상 대립 중심의 기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vrorin (1949) 이후 만주어의 시상 어미 *-ra*와 *-ha*가 양상 범주로서 대립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생겼음을 보았는데, 대체로 *-ha*는 ‘완결된’ 상황을 가리키며 *-ra*는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Comrie (1976, 1985) 등에서 정립된 일반언어학적인 시제 및 상 개념과 Bybee et al. (1994)의 유형론적 연구를 참고하여 *-ra*와 *-ha*를 양상 범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4.1. 상대 시제(relative tense) 개념과의 비교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시제의 정의이다.

(7)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시제의 정의

- a. “... tense is a deictic category, i.e. locates situations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¹⁴⁾
- b. “시제란,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state-of-affairs)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temporal position)를 문법적 수단(grammatical means)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사태의 발생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발

14)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

화시, speech time)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를 절대 시제(absolute tense), 후자를 상대 시제(relative tense)라고 한다. 절대 시제는 화시적(deictic category)이다.”¹⁵⁾

(7a)와 (7b)는 모두 발화시를 기준시(reference time)로 하는 절대 시제와, 그 외의 시간을 기준시로 하는 상대 시제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Comrie (1985: 57)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어의 현재 분사 구문을 상대 시제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8) The passengers awaiting flight 26 proceeded to departure gate 5.

(8)은 일반적으로 ‘the passengers who were awaiting flight 26 proceeded to departure gate 5’로 해석되어, 현재 분사 구문(awaiting)과 주절(proceeded)의 상황이 동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동일한 문장에 대하여 ‘the passengers who are awaiting flight 26 proceeded to departure gate 5’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 분사 구문(awaiting)이 발화시 현재와 동시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영어의 현재 분사 구문은 발화시 뿐 아니라, 그 밖의 시점(時點)인 주절의 상황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황을 동시적인 것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대 시제로 해석할 수 있다.

만주어의 경우에도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종결형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를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관형형이나 명사형 등 비종결형의 경우 상위문의 시제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 시제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289-322.

(9) 종결형과 관형형에 나타난 waha의 예

- a. hoton i ejen baindari beile i ama jui be bahafi waha, (1:18:2)
성의 수장 Baindari Beile 부자를 잡아서 죽였다.
- b. tere gurgui yali be amcafi waha niyalma gulhun gaisu (4:35:1)
그 짐승의 고기는 추격하여 죽인 사람이 온전히 가지라.

(9a)에서는 waha ‘죽였다’가 종결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발화시 기준 과거에 죽인 상황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 (9b)의 문장은 명령문으로, 관형형 waha ‘죽인’이 가리키는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위문의 서술어인 ‘가지라’의 상황보다 선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형형 waha의 시제는 상위문 상황의 시간, 즉 미래(비현실)를 기준시로 하는 상대 시제적 관점의 과거 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vrorin (1949)이 제시한 (6)의 만주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10) a. si(ni) alara de bi donjimbi

내가 말할 때, 내가 듣는다

b. si(ni) alara de bi donjihabi

내가 말할 때, 내가 들었다.

상대 시제의 관점에서 볼 때, 종속절 alara de ‘말할 때’의 시제는 주절인 donjimbi ‘듣는다’((10a)) 또는 donjihabi ‘들었다’((10b))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앞서 살핀 영어의 현재 분사구문과 마찬가지로 자체로는 형태 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앞서 (4)에서 살핀 분사형 어미 -ra의 용례가 주절 상황에 상대적으로 현재와 미래 상황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ra를 상대 시제에 따른 비과거 시제로 볼 수 있으며 -ra와는 상보적으로 항상 주절 상황에 상대적으로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ha는 상대 시제에 따른 과거 시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Avrorin (1949) 또한 ‘발화시’와 구별되는 ‘기준시점이 되는 주

절의 상황시’를 설정하였으며, 종속절 또는 내포절 상황의 시간을 발화 시가 아닌 주절 상황의 시점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상대 시제의 개념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vrorin (1949)의 -ra에 대한 ‘완결되지 않은 양상’이라는 개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아울러 가리킨다고 보면 비과거 시제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ha에 대한 ‘완결된 양상’이라는 개념 역시 과거 시제의 의미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¹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ra와 -ha에 대한 Avrorin (1949)의 양상 대립과 비과거/과거의 시제 대립이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단지 ‘상대 시제’의 개념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본다.

4.2. Comrie (1976)의 완망상/비완망상 대립과의 비교

Avrorin (1949)을 비롯하여 -ra와 -ha를 양상 대립으로 기술한 연구에서는 두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⁷⁾

16) 물론 과거 시제가 단순히 상황이 기준시보다 선행함을 나타내며 그 상황의 완결 여부는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면 ‘완결된 양상’과 과거 시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Comrie (1985: 41)에서도 과거 시제가 완결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일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It should also be noted that use of the past tense only locates the situation in the past, without saying anything about whether that situation continues to the present or into the future, although there is often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at it does not continue to or beyond the present.”).

17) 표의 목록은 필자가 확인한 것들만 포함된 것으로, 완전한 목록은 아니다. 최신 만주어 연구 저작의 목록은 다음 저작을 참고할 수 있다. Rudolph, R. C. and Walravens, H. (2009),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Manchu Studies”, *Monumenta Serica*, 57(1), 231-494.

(11) 선행 연구에서 양상 대립으로 기술한 -ra와 -ha

	-ra	-ha
Avrorin (1949)	неокончателный вид	окончателный вид
Haenisch (1961)	participium imperfecti	participium perfecti
Sinor (1968)	aspect inaccompli	aspect accompli
Roth Li (2000)	imperfective	perfective
Gorelova (2002)	imperfect	perfect
河内良弘・清瀬義三郎(2002)	非完了(non-perfective)	完了(perfective)
Baek (2011)	imperfective	perfective
오민석(2013)	비완망상적 비과거시제 ¹⁸⁾ (imperfective non-past)	완망상적 과거시제 (perfective past)

각 연구자마다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ra와 -ha가 이항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양상 범주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은 보통 완망상(perfective aspect)과 비완망상(imperfective aspect)의 대립으로 귀결된다.¹⁹⁾ Roth Li (2000), Baek (2011), 오민석(2013) 등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perfective/imperfective’ 용어를 이용하는 것도 Comrie (1976)에서 잘 정립된 이들의 양상적 대립을 만주어 -ra와 -ha 대립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그런데 Comrie (1976)의 완망상/비완망상 대립과 만주어 -ha/-ra 대립은 의미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완망상은 상황 내부의 시간적 구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시작, 중간, 끝의 구분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비완망상은 상황 내부의 시간적 구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특징으로 인

18) ‘비과거/과거’ 등 시제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중심문법범주는 양상임을 밝히고 있다.

19) 박진호(2011: 304).

20) Roth Li (2000)은 확실하지 않으나 Baek (2011)과 오민석(2013)은 본문에서 Comrie (1976)의 완망상/비완망상 개념을 이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1) Comrie (1976: 3-4)에서 영어의 John was reading when I entered와 같은 복합문의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를 각각 전형적인 비완망상(imperfective aspect)과 완

해 비완망상에는 크게 진행상(progressive aspect)과 습관상(habitual aspect)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모두 기준시 대비 현재(present)와 관련이 있다.²²⁾ 반면 만주어 -ra는 기준시(즉 상위문의 시점) 대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 가리킨다. 다음의 기술이 만주어학에서 -ra에 대해 사용하는 ‘imperfective’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 (12) “Imperfective verbal nouns ‘-ra/-re/-ro’ indicate a situation which is not completed at the time of speaking. From this inherent meaning of imperfective aspect, the meanings of present tense and future tense are derived. (‘비완망상’ 동명사 ‘-ra/-re/-ro’는 발화시에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지시한다. 비완망상의 이런 내재적 의미로부터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의 의미가 도출된다.)”²³⁾

즉 만주어학에서는 Avrorin (1949) 이래로 -ra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Comrie (1976)의 완망상/비완망상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omrie (1976)에서 정립된 비완망상의 의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완망상의 의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상황이 포함되지는 않으며²⁴⁾, 완망/비완망

망상(perfective aspect)의 예로 들고 있다. “The second verb presents the totality of the situation referred to (here, my entry) without reference to its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the whole of the situation is presented as a single unanalysable whole, with beginning, middle, and end rolled into one; ... The other form, ... do not present the situation in this way, but rather make explicit reference to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the situation.”

22) Bybee et al. (1994: 125-126) “... an imperfective situation may be one viewed as in progress at a particular reference point, either in the past or present, or one viewed as characteristic of a period of time that includes the reference time, that is, a habitual situations.”

23) Baek (2013: 189).

의 구별도 상황의 ‘완결’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현재로서는 -ra와 -ha의 대립은 상대 시제에 따르는 비과거/과거의 시제 대립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만주어는 시제 중심 언어인가 양상 중심 언어인가

Avrorin (1949)에서 -ra와 -ha를 ‘완결되지 않은’ 양상과 ‘완결된’ 양상의 대립으로 본 이후, 많은 문법서에서 이들을 양상 범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만주어를 시제 중심 언어가 아닌 양상 중심 언어로 기술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만주어를 시제 언어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만주어는 전형적인 시제 언어의 특징을 보여준다.²⁶⁾ 어떤 언어가 시제 언어인지

24) Bybee et al. (1994: 249-250)에서 라틴어와 현대 그리스어에서 비완망상(imperfective) 형태가 ‘예정된 미래’(expected future)를 나타낼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만주어 -ra가 나타내는 미래의 의미가 ‘예정된 미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5) “The perfective does indeed denote a complete situation, with beginning, middle, and end. The use of ‘completed’, however, puts too much emphasis on the termination of the situation, whereas the use of the perfective puts no more emphasis, necessarily, on the end of a situation than on any other part of the situation, rather all parts of the situation are presented as a single whole.” Comrie (1976: 18).

26) 이는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만문노당』의 만주어를 검토한 결과이지만 대체로 만주어 문어의 시기상의 구별 없이 동일한 문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문노당』(17세기 초)에서 『청어노걸대』(1765)에 이르는 자료를 다루고 있는 성백인(1968)에서 “서로 100여년의 시차를 가진 자료를 함께 다룬 점에 고려의 여지가 있겠으나 필자가 살핀 바로서는 함께 다루지 못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참고하면,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는 대체로 동질적인 문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주어 구어나 현대 시버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어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만주어 구어의 문법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의 경우 대체로 17-18세기의 만주어 문어를 자료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와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차이이기 때문에 만주어를 양상 중심 언어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거 상황과 비과거 상황이 필수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여부인데,²⁷⁾ 만주어는 -ha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과거 상황을 가리키며, 과거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도 -ha이기 때문에, 과거/비과거의 구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²⁸⁾ 한편 비시제 언어나 전형적인 양상 대립 중심 언어에서는 이렇게 과거 또는 비과거 상황이 문법 형태에 의해 필수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시제 언어인 고전 일본어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키*’(ki)와 ‘*케리*’(keri)가 있어서 과거 상황을 가리키지만, 과거 상황을 가리킬 때 반드시 이들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²⁹⁾ 양상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인 서아프리카의 요루바(Yoruba)어에서는 상태동사가 아닌(nonstative) 동사의 경우, 동사 앞에 *ń* 형태가 사용되어서 비완망상 의미를 표현하며, 아무 것도 붙지 않은 동사는 완망상 의미를 가진다.³⁰⁾ 이처럼 문법적인 시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아무런 문맥 없이 사용될 경우 비완망상 형태는 현재 시제로 완망상 형태는 과거 시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별도의 시간 표현을 사용하면 비완망상 형태가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27) 박진호(2011: 292).

28) -ha는 -ra biheo ‘간절한 요구’나 -ci wajiha ‘-면 되었다’와 같은 구문에 사용되어 비과거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ha의 전형적인 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주변적인 용법으로 보아야 한다. 시제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의 경우에도 ‘Would you ...?’와 같이 과거 시제를 이용하여 ‘공손한 요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역시 시제 중심 언어인 한국어에서도 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면 되었다(즉, 문제가 없다)’와 같이 과거 시제 ‘-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적인 용법으로 영어나 한국어의 과거 시제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만주어 -ha의 주변적인 용법으로 전형적인 과거 상황 지시의 용법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9) 박진호(2011: 292-293)를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 일본어가 비시제 언어임이 분명하며 ‘고전 일본어의 ‘*키*’(ki)와 ‘*케리*’(keri)를 과거 표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시제 표지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30) Comrie (1976: 82-83). 상태동사(stative verbs)의 경우 완망상/비완망상 대립을 가지지 않으므로 *ń* 형태가 붙지 않는다.

(13) 요루바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³¹⁾

- a. ó n̄ ʃiʃé 'he is working, he works (habitually)'
- b. ó wá 'he came'
- c. ó n̄ ʃiʃé l' ánǎ 'he was working yesterday'

(13a)와 (13b)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문맥 없이 *n̄*가 붙은 비완망상 형태는 현재 시제로, *n̄*가 붙지 않은 완망상 형태는 과거 시제로 해석되지만 (13c)에서와 같이 l' ánǎ 'yesterday'와 같은 과거 시간 표현이 함께 사용되면 비완망상이 과거 상황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河内良弘 · 清瀬義三郎則府(2002)에서 주장한 대로 만주어 -mbi가 시제를 나타내지 않으며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완료가 아니다'라는 'aspect'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mbi가 과거 시간 표현과도 함께 나타나서 과거 비완망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주어에서 -mbi는 과거 상황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³²⁾ 과거의 비완망상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mbihe 형태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형태는 기원적으로 -ha 형태를 포함한다.

(14) 과거의 비완망상 상황을 나타내는 -mbihe

- a. tere šangname bure inengi abka agambihe, (51:29:4)
상을 준 그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 b. sain sabuha niyalma be bata kimun seme gūnirakū gung arafi wesibumbihe, (4:65:2)
장점을 보인 사람은 적이나 원수라도 고려하지 않고 공을 인정하여 등용했다.

31) 요루바어의 기술은 Comrie (1976: 83)를 참고하였다.

32) -mbi는 *tuwaci* '보니', *tuwanaci* '가서 보니' 등 -ci 부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출현 환경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용법이 아닌 주변적인 용법으로 볼 수 있다.

(14a)는 과거의 진행 중인 상황을, (14b)는 과거의 습관적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 전형적으로 -mbihe가 사용된다.³³⁾ 이처럼 만주어는 -ha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과거 상황을 나타내며, 과거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시 -ha를 전형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제 언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제 대립으로 기술된 만주어 분사 어미 -ra와 -ha에 대하여, Avrorin (1949) 이후 양상 대립으로 기술하는 연구의 경향이 생겼음을 지적하고, Comrie (1976) 등에서 정립된 일반언어학적인 시제와 양상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술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위 ‘완결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된 -ha는 상대 시제적 관점에서 과거 시제로, 소위 ‘완결되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된 -ra는 상대 시제적 관점에서 비과거 시제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았다. 한편 이들 ‘완결된’ 양상과 ‘완결되지 않은’ 양상의 대립은 Comrie (1976)에서 정립된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완결되지 않은’ 양상으로 기술된 -ra가 상대 시제적인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데 비해 비완망상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해석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3)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82)에서 -mbihe를 “이 형식은 ‘어떤 행위가 과거에 항상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과거의 습관, 또는 과거에 있어서 행동의 계속을 표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번역은 필자).

참고문헌

【자 료】

中国第一历史档案馆 整理·编译(2009), 『内阁藏本满文老档』,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논 저】

김주원 외(2008), 『사라져 가는 알타이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289-322.

성백인(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_____(1981), 『만주어 음운론 연구』, 명지대학 출판부.

_____(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한글학회, pp. 72-102 (성백인 1999에 재수록).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淸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愛新覺羅烏拉熙春(1983), 『滿語語法』,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 『滿語語法』, 北京: 民族出版社.

Avrorin, V. A. (1949), “O kategorijax vremeni i vida v man’chzhurskom jazyke” [On the categories of tense and aspect in the Manchu language], *Otdelenije literatury i jazyka* 8, *Izvestija akademii nauk SSSR*, pp. 60-66.

Baek, Eung-Jin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Chuncheon: Hallym University Press.

Bybee, J., Perkins, R., and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belentz, H. C. von der (1832), *Éléments de la grammaire mandchoue*, Altenbourg: Comptoire de la Littérature.
- Gorelova, L. M. (2002), *Manchu grammar*, Leiden/Boston/Köln: Brill.
- Haenisch, E. (1961), *Mandschu-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 (Lehrbücher für das Studium der orientalischen und afrikanischen Sprachen 6), Leipzig: Verlag Enzyklopädie.
- Möllendorff, P. G. von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 Li, G.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udolph, R. C. and Walravens, H. (2009),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Manchu Studies”, *Monumenta Serica*, 57(1), pp. 231-494.
- Sinor, D. (1968), “La langue mandjoue”. *Handbuch der Orientalistik I, V, Altaistik 3*, Leiden/Köln: Brill, 257-280.
- Verbiest, F. (1696). *Elementa Linguae Tartaricae*. Paris: Poette.
- Zaxarov, I. (1879), *Grammatika man'czurskogo jazyka* [Manchu Grammar], Sankt-Peterburg.

원고 접수일: 2017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The Meaning of Manchu *-ra* and *-ha*:
Are They Tense or Aspect?

Park, Sangch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orrect positioning of *-ha* and *-ra*, which are the only members of participle suffixes in Manchu. Attempts are made to establish if they belong to the categories of tense and aspect, as established in general linguistic theories, such as that of Comrie (1976, 1986). In early Manchu grammars, these suffixes were described mainly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hree-way tense distinction of past / present / future. Since Avrorin (1949),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describe these suffixes in aspectual category. However, the aspectual distinction between *-ha*, which refers to the so-called ‘complete’ situation and *-ra*, which refers to the ‘incomplete’ situation, differs from the distinction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spect established by Comrie (1976). It can therefore be seen as a tense distinction between past and non-past in terms of relative tense at best.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